

# 개인의 성격과 지능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임 상 곤\*

## < 목 차 >

- I. 서 론
  - II. 한국 민간경비의 현황과 발전과정
  - III. 한국 민간경비원의 업무와 역할
  - IV. 한국 민간경비 교육훈련의 실태 및 문제점
  - V. 민간경비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선방안
  - VI.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ABSTRACT

## I. 서 론

범죄특질이론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연구해야 할 분야는 심리학적 범죄특질이론 (psychological criminal trait theory)이다. 이 분야는 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능 (intelligence), 성격(personality), 학습능력(learning) 등과 범죄의 상호관련성을 주축으로 하고 있다 하겠다.

Charles Goring(1870-1919)에 발표된 The English Convict(Charles Goring, 1913)라는 책에서 최초로 범죄자의 성격과 인격, 지능 등과 관련된 연구가 나타나 있다. Goring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범죄자와 비범죄자 간에 신체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뚜렷하게 발견되는 차이점은 그리 많지 않으며, 대신에 지능적 결함(defected intelligence)이 범죄자 중에서 많이 발견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는 범죄성이 상당부분 부모세대로부터 유전되는 것으로 추측되며, 가정의 기능회복과 정서순화 등의 방법을 통해 자녀가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리고 의지박약(feeble-mindedness), 간질(epilepsy), 정신착란

\* 중부대학교 공안경호학과 교수, 범죄심리학 박사

(insanity), 결함적 사회적응력(defected social instinct) 등이 역시 범죄성을 키우고 이를 현실화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Edwin Driver, 1970: 440).

Gabriel Tarde(1843-1904)는 이전의 학자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심리학적인 내용과 범죄 간의 상호관련성에 대해 연구를 시도하였다. 그는 최초로 현대적 학습이론을 주장한 학자로서 범죄학이 발전하는데 큰 공헌을 한 학자였다(Gabriel Tarde, 1912). Goring과 같은 학자들이 심리학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범죄자가 된다는 사고를 가진 것과는 달리 Tarde는 모방의 과정(process of imitation)을 통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범죄를 배우고 학습한다는 범죄학습이론을 주장했다.

Tarde가 주장한 학습방법에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의 원칙이 있다. 첫째로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이며, 사회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행동패턴이나 유형을 그대로 모방하는 습성이 있다. 둘째로 모방을 통한 학습은 상류계층에서 하류계층으로, 조직의 경우에는 위에서 아래로 이루어진다. 그가 제시한 세 번째의 원칙은 학습과 모방을 통해 배운 범죄유형이나 방법이 변화되어 새로운 형태가 나타날 경우, 이것이 강력하게 작용하여 과거의 방식과 방법을 거꾸로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작용을 삽입작용(insertion process)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알코올이나 마약의 동시남용을 들 수 있다.

Goring, Tarde, Maudsley, Pinel 등의 학자들에 의한 선구적인 연구들을 발판으로 범죄학습이론이나 범죄심리학이 발달하게 되었다. 그리고 심리학적인 관점과 학습적인 관점에서 범죄현상을 보는 학자들은 주로 범죄자화 과정을 연구하고 있다. 정상적인 사람이 갑자기 범죄자가 되는 과정을 파악함으로써 왜 범죄자가 되는가를 규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연구결과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해당자를 비행자나 일탈자, 반사회성을 가진 사람 등으로 규정하여 별도로 관리할 것을 주장하였다.

범죄현상을 심리학적인 관점과 학습론적인 문제를 과연 심리적인 문제와 학습적인 문제가 범죄행위의 생성과 실행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으로부터 보통의 일반인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주제인 것이다.

## II. 본 론

### 1. 개인의 성격과 범죄

성격(personality)이란 어떤 사람이 여타의 사람과는 다른 방식으로 나타내는 고유한 행동상, 감정상 패턴을 의미한다(Walter Mischel, 1986). 사회적 활동을 하는 모든 인간은 동일한 자극과 작용에 대해서도 제각각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기 마련이다. 이것은 동물이나 식물과는 다른 차이점으로서 동일한 종류의 생물체가 완전히 상호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개체로서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격은 이를 기준으로 행동을 하도록 만든다. 또한 각각의 성격에 따라서 반응과 대응양식이 다르다.

성격과 범죄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내용은 아직까지도 심각한 논쟁의 여지가 있는 편이다. 성격에 의해 범죄가 촉발된다는 주장과 성격과 범죄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결론이 나지 아니한 상태이다(D. A. Andrews and J. Stephen Wormith, 1989: 289-310; Donald Gibbons, 1989: 311-324).

이와 관련해서 초기연구를 진행하였던 Sheldon Glueck과 Eleanor Glueck은 반사회적이고 범죄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성격을 독단적 성격(self-assertiveness personality), 반항적 성격(defiance personality), 외향적 성격(extraversion personality), 이중 경향적 성격(ambivalence personality), 자기중심적 성격(narcissism personality) 등으로 정리를 하였다(Sheldon Glueck and Eleanor Glueck, *Unraveling Juvenile Delinquency*(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0).

다른 연구에서는 범죄적 성격(criminal personality)을 규명하기 위한 내용을 다루어 학계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은 경우도 있다(Hans Eysenck, *Personality and Crime*(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77). Hans Eysenck는 범죄와 관련하여 대별된 개성으로서 외향성과 내향성(extraversion-introversion), 안전성과 불안정성(stability-instability)을 제시하였다.

가장 먼저 내향성을 가진 사람(introvert)의 경우에 외부에 자극이나 상승작용에 대해

서 거의 반응을 하지 않으며, 반대로 외향성을 가진 사람(extravert)은 충격적인 자극이나 내용을 중요시 한다.

따라서 내향성을 가진 사람은 사물에 대한 인지나 학습에 있어서 거의 진전이 없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외향성을 가진 사람은 순서를 밝지 않고 급진적인 방법을 통해 결과를 얻으려 한다. Eysenck는 불안정하고 격렬하며, 급진적인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의 성격을 neuroticism이라는 용어로 지칭하였으며, 이 같은 성격이 직접적으로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Hans Eysenck and M. W. Eysenck,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New York. Plenum, 1985).

전반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외향적이면서 신경질적인 사람은 충동적이고, 감정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태를 보인다. 이들은 사물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정상적이라 할 수 있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감정에 치우치고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판단을 내리기가 쉽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범죄와 직결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큼을 의미하는 것이다.

마약이나 알코올 등을 중독자가 될 정도로 남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극도로 외향적인 사람들이라고 Eysenck는 평가하고 있다. 정상적인 사고와 인지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아끼고 될 수 있으면 보호하려는 성향이 있다.

하지만 극도의 외향성을 보이는 사람은 마약이나 알코올 등의 남용을 통해서 충동이나 자극에 충실하고자 하는 성향을 보인다. 결론적으로 Eysenck는 유전적인 성질과 작용에 의해서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성격이 나오게 된다는 유전설을 주장하였다.

성격상의 결함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이루어진 연구는 주로 범죄혐의로 교정시설에 수용중이거나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있는 전과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대부분이 충동적이고, 비이성적이며, 폭력적인 것을 선호하고, 행위와 사고의 불일치나 혼란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David Farrington, 1988: 37-51).

실제로 이와 같은 성향을 가진 범죄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심각한 마약이나 알코올 남용증상(alcohol and drug abuse)과 자극에 대한 폭력적 반응(violent), 섹스에 있어서 상대방을 가리지 않고 난교를 선호한다는 점(sex promiscuity)이다(Laurie Frost, 1989: 307-313).

성격의 모방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상당수의 범죄자들은 성격이 동일화되는 경향을 보

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범죄자들은 상호간에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반사회적이고, 반이성적이며, 정신이상이라고 여겨지는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조직 범죄자들을 보면, 이들에게서 공통화된 성격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동종의 범죄유형을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범죄자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공통화된 성격이 형성되는 것이다.

일부 학자들은 반사회적 인물(sociopath)과 정신질환자(psychopath)를 엄격한 의미로 구분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에 정신적인 질환보다는 폭력적이거나 비정상적인 가정환경에 의해 폭력성을 나타내는데 반해, 후자는 정신질환이나 두뇌에 충격을 준 외부작용 등으로 인해 폭력성을 보인다는 차이가 있다(David Lykken, 1996: 30-38).

### 1) 성격과 범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비정상적인 성격이 범죄나 비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는 점은 범죄학자 거의 대부분이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얼마만큼 반사회적이고 비정상적인 수준의 성격이 얼마만큼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한 측정도구나 분석의 틀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많은 범죄학자들은 측정방법을 고안하기 위해 여러 가지 연구를 진행하였다. 가장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는 성격분석법의 유형은 바로 투영검사법(projective test)으로서 이를 통해 반사회적, 비이성적 성격의 여부를 확인한다. 먼저 추상적인 도형을 나타내는 그림을 실험대상자에게 보여준 후 이것을 보고 어떠한 것이 연상되는지를 물어 본다. 이에 대한 대답에 따라서 대상자의 성격이 가지는 특징이 확인되게 되었다.

그 대표적으로는 Rorschaha Inkblot test와 과제통각 검사(thematic apperception test)를 들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방법이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성격검사법이다. 이들 테스트에는 실험대상자의 반응에 따른 답안이 있어서, 대답한 내용을 가지고 즉시 전문가에 의한 성격분류 및 확인이 가능하다.

이 두 가지 테스트법이 널리 통용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의 확실성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학자들도 100% 그 내용과 결과를 신뢰하지는 않고 있다. 인간의 복잡한 성격을 단순하게 실험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은 우려를 범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Sheldon Glueck and Eleanor Glueck, 1968).

위 두 가지의 실험방법 이외에 많이 쓰이고 있는 성격 테스트법으로서 다항목 질문형식의 성격검사(personality inventory)를 들 수 있다. 이 방법은 많은 수의 질문을 개인이나 집단에게 제시하고 이에 대한 자발적인 응답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보통 '예' 또는 '아니오' 라는 OX식의 문제가 많이 제시되며, 응답결과를 점수화하여 평가한다. 가장 많이 쓰이는 다항목 질문형식의 성격검사법으로 MMPI(minnesota multiphasic inventory of personality)를 들 수 있겠다.

R. Starke Hathaway와 J. Charnley McKinley에 의해 개발된 이 방법은 주로 다양한 성격유형확인을 위해 활용되어지는 것으로서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이 검사법을 통해 많은 종류의 성격형을 확인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반사회적 성격이나 자기중심적 성격, 공격적인 성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lio Monachesi와 R. Starke Hathaway는 MMPI를 통해 범죄적인 성격을 확인하는 방법을 최초로 고안하였다. MMPI에는 여러 가지 척도(scale)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정신병 질적 이탈(psychopathic deviation)의 성향을 나타내는 PD 척도가 많이 나타나는 사람에게서 범죄성이 자주 발견된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두 학자가 미국에서 9학년(우리나라의 중3에서 고1)에 해당하는 남녀 학생들을 대상으로 MMPI 테스트를 시행한 결과, PD척도가 많이 나오는 경우에 범죄성이나 비행성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 이외의 다른 여러 연구에서도 역시 MMPI 테스트의 PD척도가 가지는 범죄성이나 비행성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었다(R. Starke Hathaway, 1960: 443-460; Michael Hindelang and Joseph Weis, 1972: 268; Spencer Rathus and Larry Sigel, 1980: 245-251).

MMPI가 보편적인 성격을 확인하기 위해 많이 쓰이는 방법이라면, CPI(california personality inventory)는 비행성이 있는 성격과 그렇지 않은 성격을 구분하기 위한 수단으로 널리 쓰이는 방법이다(Edward Megargee, 1972).

MMPI나 CPI 등과 같은 많은 성격테스트 프로그램들이 수많은 대상자를 상대로 적용되기는 하였지만 아직까지도 범죄와 성격의 관련성에 대한 확실한 결론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다. 인간의 성격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이렇다 할 수 없는 성격의 것이라는 점도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확실한 측정도구를 개발해내지 못한 원인도 있다고 생각된다.

범죄학자들은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성격과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한 관련성을 증명하기 위해 더 많은 연구를 진행하였다.

지금까지 시행된 연구 가운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가장 자주 다루어지고 있다. Karl Schuessler와 Donald Cressey에 의한 첫 번째 연구(1950년대 이전에 가장 대표적인 연구로 인정)와 두 번째 연구인 Gordon Waldo, Simon Dinitz(1950년부터 1965년 사이에 가장 대표적인 연구로 평가), 그리고 세 번째인 David Tannenbaum(1970년대 이후의 연구 가운데 제일 연구성과가 훌륭한 것으로 평가)에 의한 연구가 대표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세 가지 연구결과 공통적인 것은 성격만을 가지고 장래의 범죄상황이나 범죄성을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좋은 성격 테스트법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미래의 범죄가능성이나 반사회성, 범죄성을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없다는 것이 공통된 결론이었던 것이다. 물론 분명히 성격상의 장애나 문제 등으로 인해 범죄나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객관적인 증명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이들 간의 관계가 정확하게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노릇이다(Karl Schuessler and Donald Cressy, 1950: 476-484; Gordon Waldo and Simon Dinitz, 1967: 185-201; David Tannenbaum, 1977: 1-19).

일부 범죄자들이 비정상적인 성격으로 인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범죄자를 놓고 이들이 전부 성격이상자라고 단언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그동안 주로 활용되어져 왔던 성격검사프로그램들이 가지고 있는 오류를 수정하고, 그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상당부분 진행되어 온 점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그 업적에 대해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기존의 MMPI를 보완, 개선한 MMPI-2 프로그램을 들 수 있는데, 이전의 프로그램보다 정확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잠재적인 범죄성과 폭력성을 확인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Edward Helmes and John Reddon, 1993: 453-471).

## 2) 범죄적 성격 소유자

선천적인 범죄자로서의 성격(crime prone personality)이 존재하는가를 놓고 학계의 찬반양론이 상호 팽팽하게 대립된 가운데 이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관심이 크게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의 PPMI나 CPI가 범죄적 성격을 명확하게 구별해내는데 실패하였다는 점에 관해 많은 반성을 했던 여러 학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과학적인 분석방법을 통해서 범죄적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고자 갖은 노력을 다하였다. 그 결과 대표적인 범죄적 성격확인 프로그램으로서 MPQ(multidimensional personality questionnaire)가 개발되었다.

원래 MPQ는 범죄와 직, 간접적인 관련성을 보인다고 여겨지는 자기통제능력(self control), 공격성(aggression), 정신장애(alienation) 등을 측정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다. 하지만 이들 성향이 범죄와 깊은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받게 됨으로서 점차 범죄성과 폭력성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어지기 시작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개발에 참여하였던 Avshalom Caspi와 그의 동료학자들은 MPQ에 의한 측정결과 거칠고 난폭한 성격(robust)을 가졌다고 여겨지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범죄나 비행에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밝혀내었다(Avshalom Caspi, 1994: 163-195).

또 한 가지 중요하게 확인한 사실은 범죄나 비행성이 높은 청소년들에게서 심리적인 스트레스나 부담으로 인한 중압감이 많이 감지된다는 점이었다. 이들은 자신에게 가해지는 압력이나 기대, 부담 등을 가급적 피하려 하며, 감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상에 대해서 이를 극복하기보다는 그대로 굴복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주변과의 대인관계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기 보다는 충동을 자주하거나 기피하려는 경향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Caspi와 그의 동료학자들은 범죄적 성격을 가진 사람은 감정적으로도 부정적인 측면의 내용만을 나타낸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즉 다시 말해, 미움이나 증오, 두려움 등의 부정적인 감정들만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행동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아닌 부정적인 측면이 지배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감정적인 것에 의한 충동적 성향이 역시 강하기 때문에 어떠한 자극에 대한 반

응에 대해서 즉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충동적인 반응은 특정 사물에 대해서 공격적인 양상을 보일 때도 그대로 적용되어지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과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충동적인 성향을 가진 범죄적 성격의 소유자는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위협에 대해서 정상인보다 더 높은 과잉대응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범죄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범죄학의 연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전제로 받아들여진다. 일단 성격이 범죄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만 인정해도 범죄가 인간의 성장과정에서 고착화된 내용으로 인해 전개된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범죄는 주변환경(environment)이나 지역사회(community)의 역할보다는 가정의 역할을 중심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범죄에 개인의 성격이 상당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전제하에 문제를 볼 경우, 주변의 환경적인 요소보다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요소, 주변인물 가운데에서도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가족에 의한 요소를 더 중요시 할 수밖에 없다.

성격은 선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후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인간의 사회적인 활동과 성장과정에서 특정한 방식의 행동유형이 고착화되어 가는 과정이 성격형성과정이기 때문이다. 성격형성은 부모나 형제와 같은 가족이나 친구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들이 제대로 성격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범죄나 비행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개인의 성격이 범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범죄예방을 위해서라도 가정의 기능의 역할을 바로잡아 주어야만 하는 것이다.

## 2. 지능과 범죄

과거 초기 범죄학자들부터 지능과 관련하여 보편적으로 제기되어온 주장이 있다면 바로 낮은 지능과 범죄의 상호관련성일 것이다. 대부분의 범죄학자들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평균수준 보다 낮은 지능(intelligence)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범죄를 저지르도록 만드는데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았다. 지능과 범죄의 관련성이 일찍부터 제기된 것은 일단 지능수준을 측정하는 것이 쉽고, 실제로 지능이 낮은 사람들에게 가서 전과를 흔하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능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범죄적인 성향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 낮은 지능을 가진 사람을 그동안 우리는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였다. 이들이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낙인(label)을 통해 범죄자로 단정해왔던 것이다.

범죄학자들이 지능과 범죄의 관련성에 대해서 가장 처음으로 연구를 시행한 분야는 당연히 교정시설에 수용한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다. 범죄학자들은 가장 쉽게 연구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재소자들을 상대로 직접 지능지수와 범죄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한 무수한 연구실적과 논문들을 나왔다.

초창기부터 시행되어온 재소자나 전과자를 상대로 한 연구들이 그럴듯해 보인 것은 사실이었지만 정작 학문적 연구성과로서 인정받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 일단 조사대상의 선정에 있어서 객관성과 대표성 문제부터 시작해서, 조사내용의 정확한 검증과 분석방법에 이르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되어졌다. 이에 대한 논란은 범죄학계 내에서도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하루 빨리 범죄학 분야가 풀어야 할 하나의 과제로 남아 있다.

### 1) 유전주의적 관점론

지능에 있어서 선천적 유전주의(naturalism)를 주장하는 범죄학자들은 개인의 행동에 있어서 지능이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이 지능이 부모나 조상으로부터 유전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능검사를 객관적인 수치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이를 활용한 지능검사와 측정이 진행되면서 유전주의 이론은 상당한 각광을 받게 되었다.

특히 재소자나 소년원과 같은 보호시설에 수용한 비행청소년들에게서 평균적으로 극히 낮은 수치의 IQ지수가 나타남으로 인해 저지능(low intelligence)이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학계의 주류를 형성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1920년에 Henry Goddard는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많은 재소자를 대상으로 연구조사를 실시하여, 정신박약이나, 지능박약(feeble minded) 증상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범죄성이 많이 발견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아 당시 학계에 충격을 주었다. 또한 그는 전체 비행청소년 가운데 최소한 절반 이상이 이와 같은 지능박약증세를 보인다

는 주장도 내놓았다(Henry Goddard, 1920; Edwin Sutherland, 1931: 15).

1926년에 William Healy와 Augusta Bronner는 시카고와 보스턴지역의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지능을 중심으로 한 연구조사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조사대상자 중 약37% 정도의 비행청소년들이 지능적으로 결함이 있거나 부족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이 내린 결론은 정상적인 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을 비교하였을 때, 후자가 지능적으로 결함이 있거나 부족함을 보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5-10배 정도 높다는 것이다 (William Healy and Augusta Bronner, 1926). 이상의 초기 연구들은 지능이 낮다는 점 자체가 잠재적인 범죄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게끔 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고대시대부터 지능이 낮은 사람은 천시되거나 경멸의 대상으로 상당한 차별대우를 받았다. 마찬가지로 저지능자들에 대한 20세기의 사고 역시 과거와 같은 방식이었다고 볼 수 있다.

선천적으로 지능이 낮거나 성장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나 부상을 당해 지능발달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은 청소년들이 전부 잠재적 범죄위험성을 가진 대상으로 여겨졌으며, 이와 같은 분위기는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되었다. 지능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부분 가운데에서도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는 형질이다.

부모가 지능이 높을 경우 그 자녀가 높은 지능을 타고날 가능성은 다른 어떠한 유전형질보다 크다고 인정되고 있다. 지금도 많은 범죄학자들은 저지능아들이 장래 성인이 되어 범죄나 비행, 비도덕적 행위를 통해 우리 사회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 2) 지능개발주의적 관점론

인간의 행동을 문화적인 견지에서 설명하는 학문적 경향이 1930년부터 나타나면서 무조건적으로 지능이 선천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상당수의 학자들은 학교교육이나 가정교육, 기타 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인간의 지능수준을 발달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흔히 지능개발론으로 불리는 이와 같은 주장과 이론들은 지능과 범죄의 상호관련성을

다시금 조명하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 같은 관점에서 지능은 부분적으로 선천적인 것일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적인 것이다.

지능개발주의적 범죄학자들은 저지능자가 상대적으로 범죄를 많이 저지르게 된다는 주장에 대해 극도로 회의적인 견해와 반응을 보였다. 그 대신에 지능개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외향적인 환경이 범죄를 저지르게 만든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환경에 따라 지능개발의 수준이 상당히 많이 달라지게 되며, 이를 기준으로 개인의 지능개발치가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된다고 보았다.

또한 지능개발을 저해하거나 도와주지 못하는 환경은 당연히 범죄나 비행을 유발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내세워 저지능자가 무조건 범죄자가 된다는 이론에 반박을 가하였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범죄자들 가운데 저지능자가 많이 나타나는 것은 이들이 지능을 개발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가지지 못했다는 의미가 될 뿐만 아니라 범죄를 유발하는 환경에 처해 있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 것이다.

192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완벽한 정설로 받아들여졌던 저지능자=범죄자라는 등식을 뒤집는 연구들이 192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26년에 John Slawson은 뉴욕의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던 1,543명의 수용소년을 대상으로 지능과 관련된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같은 기간에 뉴욕에 살고 있었던 정성소년들과 그 내용을 비교해 보았다.

Slawson의 조사결과, 전반적으로 수용소년 중 구두테스트를 통한 지능측정에 있어서는 상당히 낮은 수치가 나타난 반면에 기술적, 행동적 지능측정에서는 정성소년들과 차이가 없는 수치가 나타났다.

대화를 통해 측정되는 지능은 사회화나 교육정도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Slawson은 지능이라는 개념이 다분히 사회적이고 상대적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기존의 확정론적 지능설에 대해 반박을 하였다. 이 이외에도 범죄자의 검거숫자와 범죄유형은 지능지수와 거의 관련성이 없다는 연구결과도 내놓았다.

1931년에는 이전에 Goddard가 내놓은 연구내용을 따른 획기적인 연구결과가 나왔다. 바로 Edwin Sutherland에 의한 범죄자의 지능에 관한 연구가 바로 그것인데, 그 또한 범죄자 중 상당수가 지능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Sutherland, Mental Deficiency and Crime).

하지만 Goddard의 연구내용과 분명히 다른 점이 있는데, 일단 연구방법에 있어서 지능지수의 수치적 측정보다는 내용적인 분석에 치중했다는 부분과 범죄자의 지능이 절대적인 범죄발생의 변수라고 볼 수 없다는 전제에서 상당한 차이가 확인된다. Sutherland는 IQ와 범죄와의 직접적인 관련성보다는 IQ가 낮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범죄우발성이나 무계획성, 충동성을 중심으로 범죄현상을 설명하였다.

### 3) 지능과 범죄성에 대한 재발견

지능과 범죄의 상호관련성에 관한 연구가 범죄학의 주류에서 소외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까지도 이를 기초로 정확한 해답을 찾기 위한 노력들이 다방면에서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Travis Hirschi와 Michael Hindelang이 1977년에 발표한 두 가지 연구결과에서도 이와 같은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Travis Hirschi and Michael Hindelang, *Intelligence and Delinquency, A Revisionist Review*,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2(1977), pp. 471-586).

이 두 학자는 지능과 범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지능이 인종(race)이나 사회계층(social class)과 같은 변수보다 더 큰 작용을 한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특히 장애의 범죄가능성이나 범죄예측에 있어서 지능이 가장 중요한 판단척도가 된다고 보았다.

Hirschi와 Hindelang은 지능이 낮은 사람일수록 사회화 과정(socialization process)에서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교육에 소외되거나 뒤쳐질 수밖에 없으며, 학교교육에서 뒤쳐진 사람은 자연적으로 수입이 낮은 직업과 상대적으로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회적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지능이 낮은 사람은 교육상의 장애와 성취도 부족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가 많은 환경에서 살게 된다고 본 것이다.

Hirschi와 Hindelang의 주장은 이후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많은 학자들에 의해 옹다는 점이 증명되었다.<sup>33)</sup> 가장 대표적인 예로 Donald Lynam과 Terrie Moffitt,

33) Deborah Denno, *Sociological and Human Developmental Explanations of Crime, Conflict or Consensus*, *Criminology* 23(1985), pp. 711-741; Christine Ward and Richard McFall, *Further Validation of the Problem Inventory for Adolescent Girls, Comparing Caucasian and Black*

Magda Stouthamer-Loeber의 공동연구를 들 수 있는데, 이 세 학자는 직접적으로 지능지수와 범죄가 긴밀한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보여주는 학업성취도는 지능과 범죄, 비행의 관련성을 설명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어진다. 흑인과 백인청소년들의 학업성취도를 비교하면, 백인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점은 흑인들이 백인들에 비해 높은 범죄율을 보여주고 있는 현상과 깊은 관계가 있다(Donald Lynam, 1993: 187-196).

James Q. Wilson과 Richard Herrnstein에 의해 공동 저술된 "Crime and Human Nature"에서는 지능이 범죄와 관련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이 책에서 낮은 지능은 교육과정에서 뒤쳐지는 상황을 유발하며, 이는 곧바로 범죄적 환경으로 내몰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을 하였다.

따라서 낮은 지능이 직접 범죄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촉매변수로 작용한다고 보았다(James Q. Wilson and Richard Herrnstein, 1985: 148). 책의 결론 부분에서 Wilson과 Herrnstein은, 학교를 비롯한 교육과정상의 경쟁에서 소외된 학생은 자신의 목적을 공부 아닌 다른 것에서 찾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폭력이나 절도 등과 같은 범죄적, 비행적 행동을 통해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찾는 비정상적인 인격과 사회성이 형성된다고 주장하였다(James Q. Wilson and Richard Herrnstein, 1985: 171).

지능과 범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광범위하게 벌어졌다. 대표적으로 Denmark에서는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능의 관련성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Terrie Moffitt, 1981: 152-156). 덴마크의 소년 중에서 낮은 지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과도한 폭력성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이 주로 어려움

---

Delinquents and Nondelinqu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4(1986), pp. 732-733; L. Hubble and M. Groff, Magnitude and Direction of WISC-R Verbal Performance IQ Discrepancies Among Adjudicated Male Delinqu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0(1981), pp. 179-183; Robert Gordon, IQ Commensurability of Black-White Differences in Crime and Delinquency,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Washington D. C. August 1986), idem, Two Illustrations of the IQ-Surrogate Hypothesis, IQ Versus Parental Education and Occupational Status in the Race-IQ-Delinquency Model,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Society of Criminology, Montreal, Canada, November 1987.

을 겪는 부분이 대화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차원에서 폭력과 같은 행동이나 과민반응을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다(Terrie Moffitt, 1981: 155).

캐나다에서 연구를 수행한 Lorne Yeudall과 동료학자들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비행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얼마만큼 IQ가 떨어지는가를 조사하였다. 이들은 웨슬러 성인지능측정법(Wechsler adult intelligence scale)을 활용하여 비행청소년들의 지능지수를 조사하였는데, 평균적으로 정상적인 청소년들에 비해 약 20포인트 정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Lorne Yeudall, 1982: 257-265).

스웨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동 연구 활동을 벌인 Hakan Stattin과 Ingrid Klackenberg-Larsson은 IQ와 범죄의 상호관련성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기존의 것들과는 전혀 다른 관점을 보여 많은 호평을 받았다. 이 두 학자는 생후 3년 정도가 된 아이들의 지능발달정도가 장래 성인이 되어 나타날 수 있는 범죄성을 확인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이 때 지능발달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전개하였다(Hakan Stattin and Ingrid Klackenberg-Larsson, 1993: 369-378).

#### 4) 지능과 범죄간의 상호관계에 관한 재인식

Hirschi와 Hindelang의 연구가 IQ와 범죄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사실이지만 21세기가 된 지금까지도 이에 대한 정확한 해답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다. 최근의 연구들은 지능지수를 나타내는 IQ 수치가 범죄에 직접적인 관련이 되었거나,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 또한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에서도 지능과 범죄사이의 상호관련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하였다(Ulric Neisser et al., 1996: 77-101).

이에 반해, Richard Herrnstein과 Charles Murray에 의해 저술된 "The Bell Curve"라는 책에서는 IQ가 범죄와 아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는 확실성이 제기되었다.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낮은 지능을 가진 사람은 상대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많이 가지게 되며, 이 같은 점은 책안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관련증거에서 쉽게 확인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연구가 주목을 받는 것은 과거에 기존 연구와는 달리 반대의 시각에서 지능과

범죄의 관련성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 두 학자는 지능이 높은 청소년은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기회와 상황에서 이를 슬기롭게 넘기는 반면에 지능이 낮은 아이들은 쉽게 범죄자가 되는 어리석음을 보인다고 주장을 하였다.

정상적인 사람의 지능을 100으로 보았을 때, 범죄자나 비행자들의 지능지수는 약 8정도 낮은 92 전후인 것으로 이들의 연구에 나와 있다. 또한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더 낮은 IQ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낮은 IQ와 범죄의 관련성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학자들이 가장 내세우는 근거는 바로 지능이 높은 범죄자들을 상대적으로 사법당국의 단속이나 검거를 쉽게 피하지만, 지능이 낮은 범죄자들은 쉽게 검거되거나 잡힌다. 따라서 이렇게 붙잡힌 범죄자들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할 경우에 낮은 IQ 수치가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또한 재소자나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IQ를 측정하기 보다는 이들이 자기 보고(self report) 형식으로 내놓은 자료를 근거로 연구를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정확성이나 조사대상 집단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는 반론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주장이라고 여겨진다.

범죄와 지능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논쟁이 어느 시점까지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그 누구도 명확한 대답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IQ와 범죄 사이의 관련성을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학자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주장하는 학자들 간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상당한 이론적 간격이 발생하였으며, 이것을 극복하는 데에도 역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 5) 정신질환과 범죄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범죄를 연구한 거의 모든 학자들은 정신적인 비정상 상태, 즉 다시 말해 정신병(mental illness)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를 하였다. 정신분석학을 기초로 범죄현상을 보는 학자들은 정신병이 과도한 스트레스나 갈등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보았고, 행동과학을 기초로 한 학자들은 주변환경의 영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았으며, 마지막으로 인지론자들은 정신적으로 과도한 작용과 혼란 상태가 이를 야기한다고 보았다.

초기에 정신질환과 범죄의 상호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의학적인 견지에서 많이 전개되었다. 정신과 의사들은 극도로 잔인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범죄를 저지를 사람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로 이들 중 상당수는 과거 정신질환을 겪는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James Sorrell이 그의 대표적 저서인 "Kinds Who Kill"이라는 책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살인을 저지른 청소년이나 아동들은 상대방에 대해서 명확한 적개심을 보이고(overtly hostile), 지극히 폭발적이고 휘발성이 강하며(explosive and volatile), 걱정이 많고(anxious), 감정적으로 우울한(depressed) 성향을 보인다(James Sorrell, Kids Who Kill, Crime and Delinquency 23(1977), pp. 312-320).

Sorrell의 연구 이외에도 Richard Rossner와 동료학자들에 의한 연구가 있었는데, 총 45명의 남성 살인범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이들 가운데 약 75%나 되는 살인범들이 이전에 정신병이나 정신질환을 앓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ichard Rosner, 1979: 342-351). 또 다른 연구에서는 자녀를 학대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역시 이들 중 상당수가 과거에 정신병이나 우울증과 같은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ichard Famularo, 1992: 658-660).

정신질환이나 정신병을 경험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정상인과 비겨했을 때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른다는 연구결과는 많이 나와 있다. 특히 약물이나 마약, 알코올 등을 남용하여 증세가 유발되거나 더 심해진 사람들에게서 많은 범죄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Richard Wagner, 1994: 30-38). Bruce Link와 Ellen Steury에 의한 최근의 두 가지 연구결과는 정신질환과 범죄의 상호관계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다.

이 두 학자는 각각 법원에서 범죄혐의로 기소된 사람들 가운데 정신질환이나 정신병을 앓은 경력이 있거나 현재 앓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정신병력이 있거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Bruce Link, Howard Andrews and Francis Cullen, 1992: 275-292; Ellen Hochstedler Steury, 1993: 354-374). 두 학자의 연구는 그간 정설로 받아들여져 왔던 정신병질과 범죄사이의 비례관계를 완전히 뒤집는 내용으로서 상호간의 현실적인 관련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들의 연구가 기존의 주장과 학설을 뒤집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신질환과 범죄의 관계가 전혀 없다고 이야기 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정상인에 비해서 돌발적인 행동을 많이 하며, 이들의 공격성이 정상인의 그것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공격성이나 폭력성으로 인해 범죄를 충분히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Marc Hillbrand, 1994: 9-13). 이와 관련해 뉴욕에서 시행한 출소자를 대상으로 한 재검거율 조사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점을 나타내주고 있다.

뉴욕시는 이전에 정신병을 앓은 경력이 있는 출소자와 전혀 그렇지 않은 출소자를 대상으로 재범율을 조사하는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 장기간에 걸친 조사에서 나온 결론은 이전에 정신질환을 앓은 경력이 있는 출소자가 정상적인 출소자에 비해서 더 낮은 재범율을 보인다는 점이었다(Carmen Cirincione, 1991).

앞의 두 학자의 연구결과와 뉴욕시의 조사결과를 모두 놓고 종합하여 볼 때 범죄와 정신질환간의 직접적인 조사결과를 모두 놓고 볼 때 범죄와 정신질환간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단, 정신병력은 어디까지나 제도권에 의해 치료받은 기록만은 기준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오류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위와 같은 실험결과에 대해서 대다수의 학자들은 아직까지도 정신질환이나 정신이상 이 폭력성과 간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물론 그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에 있어서는 복잡한 증명과정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학계에서는 보편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특정한 유형의 정신질환과 이상증상이 급격한 폭력성의 작용을 수반하며, 이로 인해 폭력적인 유형의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결과가 나왔다(John Monahan, 1996).

이 연구에서는 주로 본인 스스로가 갑자기 나타나는 폭력성이나 공격성에 대해서 전혀 통제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정신이상이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내용을 펼쳤다. 특히 누군가 보이지 않는 존재에 의해 명령을 받음으로서 자신이 분출하는 감정과 타인에 대한 적개심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형성됨으로 인해 범죄가 진행된다고 보았다.

실제로 우리 사회 안에는 다른 주변사람의 정신질환이나 이상증세로 인해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다. 가족 중 한사람이나 또는 배우자, 친구, 기타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의해 곤경에 처하거나 최소한 간접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다(Howard Berenbaum and Frank Fujita, 1994: 148-158).

앞으로 정신이상이나 질환으로 인해 범죄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보다 다각적인 연구활동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어지며, 이 두 가지 요소 간의 상호작용과 관계에 보다 확실한 내용이 과학적 연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 예상된다(Monahan, Mental Illness and Violent Crime).

## 6) 정신이상과 범죄

Freud가 그의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범죄와 심리학 이론을 연관지은 것은 거의 없다. 더욱이 범죄와 관련성을 연구하기 위해 보냈던 시간은 극히 적었다. 그는 잠재적인 범죄성이 본인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내면에서 자라나게 되며, 오이디푸스, 엘렉트라 complex에 의해 죄를 짓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이 전부 사라진다고 보았다.

나이가 어린 범죄자에게 있어서 죄에 대한 자책감과 양심의 손상은 분명하게 존재하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범죄행위를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지는 않다고 보았다. 여기에 추가해서 성인이 되면서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가 자신에게까지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됨으로서 비로소 범죄나 반사회적 행위를 범하지 않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Freud는 어떠한 행동이나 양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즉각적일 경우에 범죄행위를 마다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반대로 장기간에 걸쳐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 성격의 일인 경우에는 범죄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이것은 즉각적인 효과의 발생인 결과산출이 범죄행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심리적 기제(psychological mechanism)로 작용한다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부분이다.

Freud 이외의 다른 여러 범죄심리학자들은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형성되는 심리적 메커니즘이 범죄성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에 대해 연구 활동을 벌였다. 가장 대표적인 학자로서 Alfred Adler(1870-1937)는 개인의 심리적 작용에 대한 연구 이외에 범죄행위를 나타내게 만드는 심리적 원인을 규명하는데 힘썼다. Adler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inferiority complex)이 이를 보상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범죄를 선택하도록 만든다는 이론

을 내세웠다.

Eric Erikson(1902-1984)은 범죄행위의 심리적 원인으로서는 자아의 위기(identity crisis)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자아의 위기란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주체성의 상실이나 자아실현의 의지상실 등과 같은 예로 설명할 수 있으며, 자신이 무엇이며, 무엇을 달성하기 위해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청소년기에 비행이나 범죄문제가 나타나는 것도 자신이 무엇이며, 어떠한 존재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사회에 공헌하고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인생의 목표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반사회적인 행위와 범죄를 서슴없이 자행한다.

심리학을 집대성한 학자 가운데에서 가장 범죄분야와 관련해 제대로 이론을 펼쳤다고 평가되는 사람은 바로 August Aichorn이다. 그는 많은 수의 비행청소년과 범죄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활동을 한 결과 이들 중 상당수로부터 심리적인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다.

사회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나 사고의 붕괴 등이 이들이 저지르는 모든 범죄와 비행행위의 원인으로 볼 수 없으며, 심리적으로 어떠한 이상과 문제점이 있을 때에만 이와 같은 원인들이 제대로 작용을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그는 어느 정도 심리적인 문제성을 가진 청소년만이 비행이나 범죄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가정 하에 크게 세 가지의 강조 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로 비행소년이나 범죄소년들은 성격이 급하기보다는 쉽고 빠른 방법으로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 둘째로 이들은 타인들과 관련된 이익이나 목적보다는 자신만을 위한 목적이나 이익을 더 중요시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셋째로 어떠한 것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 없이 단순히 충동적이고 본능적인 것에만 의지하고 따르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 7) 범죄행위와 정신분석학

초기 심리학자들은 범죄자 중 상당수 Id와 같은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함으로써 인해 범죄행위를 저지른다고 보았다. 이드가 강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요구불만을 이기지 못하고 충동적인 것에 제대로 억제하지 못하며, 만족과 쾌락만을 우선시

한다.

범죄자들이 이드에 있어서 문제를 가지게 되는 데에는 주로 아동기나 청소년기의 경험들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동기나 유아기에 부모가 적절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자녀에 대해서 부모의 역할을 다하지 않을 경우에 이들의 정상적인 이드통제기능이 성립되지 못한다. 따라서 충동적인 부분에 대해 본인 스스로도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에고가 정상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못한 사람은 대부분이 인격이 성숙되어 있지 못하고, 타인에 대해서 의존적이거나 완전히 배타적인 경향이 강하며, 반사회적이고 기존의 가치관과 기준에 일탈적인 집단에 쉽게 동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마약을 남용하거나 기타 문제가 되는 집단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범죄와의 관련성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

에고와 수퍼에고가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해야 할 스스로의 역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 자신이 하는 행동이 잘못된 것인지 또는 다른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피해를 주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 범죄나 비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인격이나 성격에 있어서 장애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장차 신경정신과적인 질환이나 비정상적인 심리작용으로 인해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겪게 된다. 정신분석학자들은 이에 대해 비정상적인 인격과 개성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 그만큼 정신적 혼란이나 고민을 겪게 된다고 보았다. 이들 증상 간에는 일정한 상호관계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 과정과 관계가 얼마만큼 중요한가에 따라서 범죄와 연결될 수 있는 인과관계상의 차이가 발생한다.

심리적 불안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주장을 하는 학자들은 많이 있지만, 왜 그러한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명하거나 이론을 제시한 학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 최근 들어 범죄와 관련하여 보편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심리적 불안을 매우고, 자신에게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다는 이론이다. 심리적인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불안감과 공허감으로 시달린다. 이와 같은 감정들은 범죄라는 방법을 통해서 충족시킨다고 보는 것이 정신분석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이다.

정신분석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범죄행위는 심리적인 통제불능이나 문제가 되는 상태

를 되돌리기 위한 일종의 몸부림으로 볼 수 있다. 심리적인 이상과 비정상적인 작용으로 인해 고통을 달하는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 나름대로의 탈출구로 범죄를 찾는 것이다.

### Ⅲ. 결 론

우리가 지능과 범죄의 관련성을 알려주는 것으로 자주 인용하고 있는 논문은 그 대부분이 흑인들이 지능들이 낮고, 이들 중에 범죄자가 많다는 결론을 보여준다. 하지만 원래 IQ라는 것 자체가 흑인이나 황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닐뿐더러 순전히 백인들의 지능을 측정하기 위해 백인들의 기준에 따라 설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여겨진다.

전반적으로 범죄자들의 지능수준이 정상인들에 비해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모든 유형의 범죄자들이 동일하게 지능이 떨어진 것은 아니다. 흔히 하이테크 범죄로 불리고 있는 컴퓨터범죄나 화이트칼라범죄로 불리고 있는 고학력, 고지능자들에게 의한 범죄도 현대사회에서 얼마든지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지능수준과 범죄의 관계를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남성과 여성 가운데 범죄자가 되는 비율이 남성이 훨씬 높다는 사실부터 시작해서 연령과 관련된 범죄현상까지 지능만을 가지고 확실하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 참 고 문 헌

Avshalom Caspi, Terrie Moffitt, Phil Silva, Magda Stouthamer Loeber, Robrt Kruger and Pamela Schmutte, Are Some People Crime-Prone? Replications of the Personality-Crime Relationship Across Countries, Genders, Races and Methods, *Criminology* 32(1994), pp. 163-195

Bruce Link, Howard Andrews and Francis Cullen, The Violent and Illegal Behavior of Mental Patients Reconsidered,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7(1992), pp. 275-292.  
Ellen Hochstedler Steury, Criminal Defendants with Psychiatric Impairment, Prevalence, Probabilities and Rates,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84(1993), pp. 354-374

Charles Goring, *A Statistical Study*, 1913(Montclair, N. J. Patterson Smith, 1972

Carmen Cirincione, Henry Steadman, Pamela Clark Robbins and John Monahan, *Mental Illness as a Factor in Criminality, A Study of Prisoners and Mental Patients*(Delmar, N. Y. Policy Research Associates, 1991), idem, *Schizphrenia as a Contingent Risk Factor for Criminal Violence*(Delmar, N. Y. Policy Research Associates 1991

D. A. Andrews and J. Stephen Wormith, Personality and Crime, Knowledge and Construction in *Criminology, Justice Quarterly* 6(1989), pp. 289-310. Donald Gibbons, Comment-Personality and Crime, Non-Issues, Real Issues and a Theory and Research Agenda, *Justice Quarterly*(1989), pp. 311-324

David Farrington, Psychobiological Factors in the Explanation and Reduction of Delinquency, *Today's Delinquent*(1988), pp. 37-51

David Lykken, Psychopathy, Sociopathy and Crime, *Society* 34(1996), pp. 30-38

Deborah Denno, Sociological and Human Developmental Explanations of Crime, Conflict or Consensus, *Criminology* 23(1985), pp. 711-741, Christine Ward and Richard McFall, Further Validation of the Problem Inventory for Adolescent Girls, Comparing

Caucasian and Black Delinquents and Nondelinqu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4(1986), pp. 732-733, L. Hubble and M. Groff, Magnitude and Direction of WISC-R Verbal Performance IQ Discrepancies Among Adjudicated Male Delinqu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0(1981), pp. 179-183, Robert Gordon, IQ Commensurability of Black-White Differences in Crime and Delinquency,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Washington D. C. August 1986), idem, Two Illustrations of the IQ-Surrogate Hypothesis, IQ Versus Parental Education and Occupational Status in the Race-IQ-Delinquency Model,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Society of Criminology, Montreal, Canada, November 1987

Donald Lynam, Terrie Moffitt and Magda Stouthamer-Loeber, Explaining the Relation Between IQ and Delinquency, Class, Race, Test Motivation, School Failure or Self-Control,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2(1993), pp. 187-196

Edwin Driver, Charles Buckman Goring, in *Pioneers in Criminology*, ed. Hermann Mannheim(Montclair, N. J. Patterson Smith, 1970), p. 440

Edward Megargee, *The California Psychological Inventory Handbooks*(San Francisco. Jossey Bass, 1972

Edward Helmes and John Reddon, A Perspective on Developments in Assessing Psychological Bulletin 113(1993), pp. 453-471

Edward Helmes and John Reddon, A Perspective on Developments in Assessing Psychological Bulletin 113(1993), pp. 453-471

Gabriel Tarde, *Penal Philosophy*, trans. R. Howell(Boston. Little Brown, 1912

Hans Eysenck, *Personality and Crime*(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77

Hans Eysenck and M. W. Eysenck,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New York. Plenum, 1985

Henry Goddard, *Efficiency and Levels of Intelligence*(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20); Edwin Sutherland, *Mental Deficiency and Crime*, in *Social Attitudes*, ed. Kimball Young(New York: Henry Holt, 1931), chap. 15

Hakan Stattin and Ingrid Klackenber-Larsson, Early Language and Intelligence Development and Their Relationship to Future Crimin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2(1993), pp. 369-378

Howard Berenbaum and Frank Fujita, Schizophrenia and Personality, Exploring the Boundaries and Connections Between Vulnerability and Outcom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3(1994), pp. 148-158

L. Hubble and M. Groff, Magnitude and Direction of WISC-R Verbal Performance IQ Discrepancies Among Adjudicated Male Delinquents

James Q. Wilson and Richard Herrnstein, *Crime and Human Nature*(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85), p. 148

James Sorrell, Kids Who Kill, *Crime and Delinquency* 23(1977), pp. 312-320

John Monahan, *Mental Illness and Violent Crime*(Washington D. C.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1996

Karl Schuessler and Donald Cressy,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Criminal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55(1950), pp. 476-484. Gordon Waldo and Simon Dinitz, Personality Attributes of the Criminal: An Analysis of Research Studies 1950-1965,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4(1967), pp. 185-201. David Tennenbaum, Research Studies of Personality and Criminality, *Journal of Criminal Justice* 5(1977), pp. 1-19

Laurie Frost, Terrie Moffitt and Rob McGee, Neuropsychological Correlates of Psychopathology in an Unselected Cohort of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8(1989), pp. 307-313

Lorne Yeudall, Delee Fromm-Auch and Priscilla Davies, Neuropsychological Impairment of Persistent Delinquency,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s* 170(1982), pp. 257-265

Marc Hillbrand, John Krystal, Kimberly Sharpe and Hilliard Foster, Clinical Predictors of Self-Mutilation in Hospitalized Patients,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82(1994), pp. 9-13

Monahan, *Mental Illness and Violent Crime*

R. Starke Hathaway and Elio Monachesi, *Analyzing and Predicting Juvenile Delinquency with the MMPI*(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R. Starke Hathaway, Elio Monachesi and Lawrence Young, *Delinquency Rates and Personality*, *Journal of Criminal Law, Criminology and Police Science* 51(1960), pp. 443-460. Michael Hindelang and Joseph Weis, *Personality and Self Reported Delinquency. An Application of Cluster Analysis*, *Criminology* 10(1972), p. 268. Spencer Ratus and Larry Sigel, *Crime and Personality Revisited*, *Criminology* 18(1980), pp. 245-251

Richard Rosner, *Adolescents Accused of Murder and Manslaughter, A Five-Year Descriptive Study*, *Bulletin of the American Academy of Psychiatry and the Law* 7(1979), pp. 342-351

Richard Famularo, Robert Kinscherff and Terence Fenton, *Psychiatric Diagnoses of Abusive Mothers, A Preliminary Report*,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80(1992), pp. 658-660

Richard Wagner, Dawn Taylor, Joy Wright, Alison Sloat, Gwynneth Springett, Sandy Arnold and Heather Weinberg, *Substance Abuse Among the Mentally Ill*,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4(1994), pp. 30-38

Sheldon Glueck and Eleanor Glueck, *Unraveling Juvenile Delinquency*(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0

Sheldon Glueck and Eleanor Glueck, *Delinquents and Nondelinquents in Perspective*(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Travis Hirschi and Michael Hindelang, *Intelligence and Delinquency, A Revisionist Review*,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2(1977), pp. 471-586

Terrie Moffitt, William Gabrielli, Sarnoff A. Mednick and Fini Schulsinger, *Socioeconomic Status, IQ and Delinquenc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0(1981), pp. 152-156

Ulric Neisser et al., *Intelligence, Knowns and Unknowns*, *American Psychologist*

51(1996), pp. 77-101

Walter Mischel, *Introduction to Personality*, 4th ed.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86

William Healy and Augusta Bronner, *Delinquency and Criminals; Their Making and Unmaking*(New York: Macmillan, 1926

## Abstract

### A Comparative Study on the Individual Personality and Intelligence for Criminal

Rim, Sang-Gon

Approximately equivalent to character disorder or character neuroses or behavioral reaction. For a discussion of the term as used currently, in the 1968 revision of psychiatric nomenclature(DSM-II).

In DSM-I(1952 nomenclature), this term referred to those cases in which the personality, in its struggle for adjustment to internal and external stresses, utilized primarily a pattern of action or behavior rather than symptoms in the mental, somatic or emotional spheres. There is minimal subjective anxiety and little or no sense of distress. As thus defined, there are three main groups of personality disorder, personality pattern disturbance, personality trait disturbance and sociopathic, personality disturbance.

Morton Prince asks whether a subconscious process can perform the same function as are ordinarily performed by conscious intelligence that is to say memory, perception, reasoning, imagination, volition, affectivity, etc? He cites clinical material at great length, concluding that the quality of the functions performed they frequently exhibit, that which is characteristic of intelligence.